

세종 용언전자사전의 의미역 기술체계 및 목록

김 현권
한국방송대학교 불어불문학과
hkkim@mail.knou.ac.kr

김 종명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lexique@hanmail.net

Theta role description system and its inventory in Sejong electronic dictionary of predicatives

Hyun-Kwon Kim
Dept. of French,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Jong-Myung Kim
Dept. of French,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세종 전자사전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사전의 하나인 세종 용언전자사전에서 사용되는 의미역 기술체계 및 그 목록을 소개하는 논문이다. 본 논문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에서는 의미역이란 개념을 정의하고 의미역 기술의 의의를 순수언어학적 차원과 NLP의 응용 차원에서 설명한다. 아울러 1부에서는 의미역 개념에 대한 기존의 비판에 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제 2부는 본론으로서 세종 용언전자사전에서 사용되는 의미역 기술체계 및 목록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의의를 소개하는 부분이다. 제 2부에서는 우선 세종 용언전자사전이 의미역 기술 및 목록 확정을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을 밝힌다. 그 다음에는 현재 세종 용언전자사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역 목록을 각 의미역의 정의와 함께 소개한다. 끝으로 세종 용언전자사전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미역 기술이 갖는 의의와 현 의미역 기술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의미역(Theta role)의 정의 및 의의

1-1 의미역이란?

하나의 서술어가 취하는 통사적 논항 자리에 분포하는 명사는 그 어휘 자체가 지니는 고유한 어휘적 의미와 그 구문에서 부여되는 통사적 기능(주어, 목적어 등)의 문법적 의미 외에 제 3의 의미가 부여된다. 즉 그것은 서술어와 논항들이 함께 어울려 표현하는 하나의 사건 속에서 각각의 논항이 서술어와의 관련하에서 부여받는 의미이다.

- (1) a. 그 여자가 나를 때렸다
- b. 그 여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c. 그 여자가 나에게 책을 선물했다

예를 들어, (1)의 세 구문의 '그 여자'는 모두 동일한 어휘적 의미를 지닌 같은 명사구이고 세 구문에서 모두 주어라는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렇지만 이 '그 여자'라는 논항이 각 구문에서 서술어와 맺는 의미적 관계는 동일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1a), (1c)의 '그 여자'는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을 의지적으로 행하는 행위자(Agent)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1b)의 '그 여자'의 경우는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을 의지적으로

행하는 행위자(Agent)임과 동시에 '책'이라는 이동 대상(Theme)의 출발점(Source)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동일한 어휘적 요소들은 각 구문 속에서 서로 다른 의미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동일한 의미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 동일한 어휘 요소들이 다양한 통사적 기능 요소로 실현될 수도 있다.

- (2) a.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 b.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 c. 물과 포도가 포도주를 이루었다
- (3) a. 영희가 나를 실망시켰다
- b. 나는 영희가 실망스럽다

(2)의 '포도주가', '포도주로' 그리고 '포도주를'은 통사적으로는 구별되는 세 요소이지만 추상적인 도착점(Goal)이라는 동일한 의미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3)의 '나를'과 '나는' 역시 통사적으로는 다르지만 심리적 경험주(Experiencer)라는 동일한 의미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통사적 표지가 다양한 의미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 또 동일한 의미관계가 상이한 통사적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의 서술어에 대한 어휘적 정보에는 통사구조에 관한 정보 외에 이런 의미적 관계(의미구조)에 관한 정보가 함께 기술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하나의 논항이 서술어와 맺는 이러한 의미적 관계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공기는 서술어의 수만큼 또는 구문의 수만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미역 관련이론에서는 이런 의미적 관계가 유한한 수의 패턴으로 수렴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런 유한한 수의 의미적 관계패턴을 바로 의미역(Theta role)이라고 부른다.

1-2 의미역의 의의

의미역 이론은 1960년부터 1970년 사이에 주로 생성 문법의 틀 안에서 Fillmore, Jackendoff, Gruber, Carter 등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오늘날에는 GB, LFG, FG(Functional Grammar)를 포함한 많은 언어학 이론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다. 의미역 이론은 의미역과 문법적 기능 사이의 규칙적인 연결성(mapping)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순수언어학적 연구 주제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언어 처리의 측면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기계어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의미역 표상은 동일한 의미역 표상을 지니지만 서로 다른 통사구조를 지닌 두 언어의 구문을 연결시키는 Interlingual representation으로 사용되고 있고 (예: 한중기계번역(이휘봉1998), PRINCITRAN(Dorr1993, 1995a, 1995b)) 그래서 기계번역을 염두에 두고 구축된 Eurota, CAT2, Logos 등의 전자사전들은 의미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3 의미역에 대한 비판 및 그에 대한 세종 용언사전의 입장

지금까지 많은 언어학자들이 의미역 개념은 언어학 이론체계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의미역 개념이 언어학적 설명장치로서 유효함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업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의미역 이론분야에서는 의미적 논항이 통사적 논항으로 실현됨에 있어서의 규칙성을 밝히는 많은 연구업적(Linking Theory, Theta role Hierarchy Hypothesis)을 축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실지로 하나의 언어에 전체적으로 적용되거나 일반언어학적으로 가치 있는, 유한하고도 완결된 의미역의 목록이 제시된 예는 극히 드물다. 의미역 개념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행위주(Agent), 피해주(Patient), 대상(Theme), 출발점(Source), 도착점(Goal) 등의 전형적인 의미역만을 주로 거론해 왔고 학자들마다 그 제시되는 목록 또한 일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각 의미역에 대한 엄정한 형식적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직관에 의존하는 의미역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간의 의미역에 대해 있어 왔던 비판은 의미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려는 비판보다는 주로 이런 점들에 대한 비판이었다. 세종용언사전에

어서의 의미역 기술은 한국어 용언 및 그 구문 전반을 대상으로 한 기술인 이상, 한국어 전반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완결된 의미역 목록을 마련하고 아울러 그 목록에 속하는 각 의미역에 대한 최대한의 형식적인 정의를 찾아서 이를 모든 구문에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일관된 의미역 기술을 하는 것이 그 목표하는 바이다. 이런 목표가 달성될 때 세종 용언사전의 의미역 기술은 앞서 언급한 의미역에 관한 기존의 비판에서 자유로운 그런 의미역 기술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완결된 의미역의 목록의 부재나 각 의미역에 대한 엄정한 형식적 정의의 부재는 현재의 의미역 이론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또 여전히 풀어야 하는 언어학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종 용언사전의 의미역 기술작업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확정된 의미역 목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연구와 기술이 병행되어야 하며 연역적 가설의 경험적 검증의 반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의미역 목록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

2. 세종 용언전자사전의 의미역 기술체계 및 목록

2-1 기술 원칙 및 현황

세종 용언전자사전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일차 3개년 동안은 13개의 의미역으로 이루어진 의미역 목록(표1 참조)을 가지고 각 구문의 의미역을 표상했다. 이 13개의 의미역은 의미역 이론 내의 기존 논의에서 이미 자주 사용되고 있고 그 유효성이 여러 언어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보수적인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 용언사전에서는 의미역에 관한 그간의 축적된 연구 및 관찰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좀 더 정제되고 세분된 의미역 목록(현재까지 33개)을 구축하여 기술에 적용하고 있다. 의미역 목록을 구축하고 또 그것을 표상하는 데에 있어서 세종 용언사전이 원칙 또는 지향하는 목표로 삼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syntactically relevant semantics, disambiguation의 원칙 : 1-1.에서 언급한 바대로 동일한 통사구조가 품고 있는 다양한 의미관계를 의미역의 차별화를 통해서 외연적으로 드러낸다.
2. 심층의 의미만이 아니라 표층의 의미까지도 포착한다 :

- (4) a. 영희가 철수에게 책을 주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서 책을 받았다

예를 들어, (4)의 두 구문은 심층적 의미(1차적 또는 기본적 의미) 차원에서 동의문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의미역 표상은 주로 이런 심층적 의미만을 표상하는 데에 주력해서 이 두 구문에 동일한 의미역들(Goal, Source, Theme)을 부과하여 통사적 차이를 초월한 의미적 동의성을 표상하려고 했다. 그러나 (4)의 두

구문은 기본적인 의미를 공유함과 동시에 표층적인 통사구조 차이에서 기인하는 어떤 의미적인 차이를 아울러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a)의 구문과 (4b)의 구문은 둘 다 '영희'라는 출발점(Source), '철수'라는 도착점(Goal) 그리고 '책'이라는 대상(Theme)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4a)의 구문의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을 의지적으로 행하는 행위자(Agent)는 '영희'이고 (4b)의 행위자(Agent)는 '철수'라는 점에서 표층적인 의미차를 유발한다고 본다. 바로 이런 동의성과 의미차이를 함께 반영하는 의미역 표상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전환구문 간의 의미적 동의성을 잘 드러낼 수 있게 의미역을 표상한다:

- (5) a. 철수와 영희가 이혼했다
 b. 철수가 영희와 이혼했다
 (6) a. 하늘이 별들이 반짝인다
 b. 하늘에 별들이 반짝인다

예를 들어, 위의 (5), (6)와 같은 동의 관계(또는 의사동의 관계)를 이루는 전환구문 쌍의 동의성 및 규칙적인 의미차를 함께 반영하는 의미역 표상을 구현한다.

4. clusters of properties, multiple theta marking - 하나의 의미역은 여러 의미역 자질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앞 선 (4a)의 예문의 '영희'는 의지적 행위주(Agent)의 의미역과 이동의 출발점(Source)의 의미역을 동시에 부여한다. 또 (4b)의 예문의 '철수'는 의지적 행위주(Agent)의 의미역과 이동의 도착점(Goal)의 의미역을 동시에 부여한다.

5. 위계구조를 이루는 의미역 체계 하에서 형식화할 수 있는 한에서 가능한 더 정제된 의미역 목록(fine grinded theta role inventory)을 구축한다: 이미 널리 사용되는 기존의 의미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의미역들을 더 하위 구분하는 방식으로 의미역을 세분화한다. 특히, 출현빈도가 높은 행위주(Agent)와 대상(Theme)의 의미역을 중점적으로 세분화시킨다.

6. 기능동사구문, 숙어동사구문은 별도로 처리: 기능동사의 경우는 특별히 서술명사가 논항 지배의 중심 위치에 놓이므로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는 논항에만 의미역을 부여하고, 서술명사 자체에는 의미역을 주지 않는다.

- (7) 주다 [기능타](STR)
 N0 N2-에게 Npr1 V
 N0=인물 Npr1=(도움) N2=인물
 N0=AGT N2=THM

숙어동사의 경우는 동사와 함께 숙어표현을 이루는 고정명사 논항에는 의미역을 배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고정 논항과 숙어동사와의 결합관계와 의미는 합성성의 원칙으로 예측할 수 없고 불투명하므로 논항과 서술어의 전체가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고정명사 논항과 숙어동사가 결합된 단위 전체가 요구하는 논항 즉 자유 명사 논항에만 의미역을 할당한다.

- (8) 가리다 [숙어타](CTR)
 N0 CI-을 V
 N0=인물 CI=(물불)
 N0=AGT

7. 일단 필수 명사논항에만 의미역을 부가한다: -고 보문과 같이 명사상당 어귀가 아닌 논항에는 의미역을 부가하지 않는다.

2-2 의미역 목록

세종 용언전자사전에서 2001년에 새로 구축한 의미역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행위주(Agent):**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를 지배(Control)하는 논항이다. 주어 논항인 경우에는 명령문을 만들 수 있고, '...려고 노력하다'의 내포문에 들어갈 수 있다. 주어 논항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 논항이 주어 논항이면서 행위주의 의미역을 지닌 문장으로 환원된다.

예) 철수가 나에게 맞았다 ↔ 내가 철수를 때렸다

행위주의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7개의 의미역으로 하위 구분된다.

1) **대상행위주(Affected Agent):**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를 지배(Control)하는 논항이면서 그 행위에 의해 스스로가 영향을 받는 논항, 즉 대상(Theme)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논항이다. 위치의 이동이나 상태의 변화를 스스로 겪는 행위자이다. 일단 동일한 위치에 대상(Theme)이 올 수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예) 철수가 학교에 갔다; 편지가 한 통 영희에게 갔다
 철수가 언덕에서 굴렀다; 바위가 언덕에서 굴렀다
 철수가 죽었다; 그 나무가 죽었다

2) **경험주(Agent Experiencer):**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를 지배하는 논항이면서 경험자(Experiencer)의 의미역이 동시에 부여되는 논항이다.
 예) 나는 철수를 존경한다

3) **공여주(Donner):**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를 지배하는 논항이면서 출발점(Source)의 의미역이 동시에 부여되는 논항이다.
 예) 나는 영희에게 책을 선물했다

4) **수령주(Recipient):**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를 지배하는 논항이면서 도착점(Goal)의 의미역이 동시에 부여되는 논항이다.

예) 나는 영희에게서 돈을 꾸었다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그 책을 받았다

5) 원인주(Causer) :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를 지배하는 논항이면서 사역주의 의미를 지닌다. '... 시키다(만들다, 하다)'의 동사구문으로 환원된다

예) 나는 철수를 학교에 보냈다
= 나는 철수를 학교에 가게 (시켰다 + 만들었다)

6) 공조행위주(Joined Agent) : 둘 이상의 복수 행위자로 구성되어야만 하는 행위자 논항이다.

예) 철수와 영희는 결혼을 했다
그 세 사람이 그룹을 결성했다

7) 행위주(Agent) : 상기한 6개의 하위유형 행위주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주이다.

예) 나는 영희를 비판했다

-상태주(Positionner) : 형용사가 표현하는 상태를 지배하는 논항. 주어 논항인 경우에는 명령문을 만들 수 있고, '... 려고 노력하다'의 내포문에 들어 갈 수 있다.

예) 철수가 아주 침착하다

-소유주(Possessor) :

예) 철수가 그 책을 갖고 있다
선생님께서서는 돈이 많이 있으시다

-비의도행위주(Effector) :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를 비의도적으로 유발하는 명사논항이다.

예) 강풍이 입간판을 전부 쓰러뜨렸다

-동반행위주(Co-agent) : 행위주 주어와 대칭성을 지니는 대칭동사구문의 '-와' 보어 논항이다.

예) 나는 영희와 이혼했다

-피해주(Patient) : 넓은 의미로는 대상(Theme)에 속하지만 의식자인 인물 대상에게는 피해주의 의미역을 부여한다. 비의식자인 인물 대상에는 대상(Theme)의 의미역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의식자인 인물 대상은 주어 자리에서 '-시'의 일치를 유발하지만 비의식자인 인물 대상은 주어자리에서 '-시'의 일치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선생님이 (Patient) 팔을 다치셨다
예) 선생님이 (Theme) 우리의 그 일에 필요하다
그 동네에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Theme) 많다
선생님은 (Theme) 우리가 설득을 하기에 벅차다

-경험자(Experiencer) : 지각, 인지 작용을 하거나 감각적 느낌, 감정을 느끼는 주체이나 그 작용이나, 느낌, 감정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예) 철수의 그 말이 나를 실망시켰다
나는 영희가 싫다

-대상(Theme) : 동작이나 과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동작이나 과정을 통제하지는 못하는 요소(= Affected Theme). 즉, 위치 이동이 되는 요소 또는 그 위치(물리적 또는 추상적)가 단언되는 요소 또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요소이다. 대상의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의미역으로 하위구분된다.

1) 동작대상(Motion Theme) : 움직임이나 위치의 변화를 겪는 대상이다.

예) 철수가 영희의 손을 흔들었다

2) 공조동작대상(Joined Motion Theme) : 둘 이상의 복수 동작대상을 구성해야만 하는 동작대상이다.

예) 철수는 A와 B의 위치를 바꾸었다

3) 상태대상(Matter Theme) : 상태의 변화를 겪는 대상이다.

예) 철수가 유리병을 깨뜨렸다

4) 공조상태대상(Joined Matter Theme) : 둘 이상의 복수 상태대상을 구성해야만 하는 상태대상이다.

예) 영희는 A와 B를 하나로 통합하다
영희는 A를 B와 결합시켰다

5) 대상(Affected Theme) : 상기한 4개의 하위유형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이다.

예)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창조대상(Creature) : 서술어의 동작에 의해서 창조되는 대상이다.

예) 나는 쌀가루로 떡을 만들었다

-중립대상(Neutral) : 동작이나 과정의 대상이지만 위치 이동이 되지도 않고, 그 위치(물리적 또는 추상적)가 단언되지도 않으며, 그 동작이나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요소이다.

예) 나는 영어를 배웠다
나는 영희를 사랑한다

-장소(Location) : 대상(Theme) 또는 대상행위주(Affected Agent)가 위치하는 물리적, 추상적 시공간. 의문문에서 '어디'에 호응된다.

예) 우리는 서울에 산다
책이 서재를 가득 채우고 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하다
(그 일에는 + 철수에게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착점(Goal) : 물리적 도착점. -로, -에, -에게

예) 철수가 서울에 도착했다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결과상태(Final State) : 추상적 도착점. -로, -에

예) 골키퍼가 김병지로 바뀌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나는 철수를 사위로 삼았다

-출발점(Source) : 물리적 시간, 장소적 출발점. -에서, -로부터, -에게서.

예) 철수가 서울에서 출발했다
두 시부터 회의가 시작된다

-최초상태(Initial State) : 추상적 출발점. -에서, -로부터, -에게서.

예) 내가 차를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바꿨다

-방향(Direction) : 물리적, 추상적 방향. -로, -에게, -에 대해서.

예) 철수는 서울로 출발했다
철수가 나에게 대해서 적대적이다
우리는 선생님에게 인사를 했다

-경로(Path) : 이동의 경로. -로

예) 나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행로(Range) : -을

예) 나는 두 시간 동안 명동을 헤맸다
우리는 그 다리로 강을 건넜다

-목적(Object) : -을

예)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장면(Scene) : 필수적인 '-에서' 보어

예) 내가 이 동네에서 산다
언어학에서 통사론이 핵심적이다
우리는 그 숲 속에서 헤맸다

-기준치(Criterion) : 평가의 기준이 되는 '-에', '-보다', '-만', '-와'의 요소이다.

예) 이 일은 내 능력에 부친다
철수는 영화(-만 + -보다) 못하다
영화는 나와 다르다

-정도(Degree) : 정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의
논항이다.

예) 모인 사람이 전부 10명에 불과하다
내 나이도 어언 50세를 바라본다

-재료(Material) : -로

예) 나는 쌀가루로 떡을 만들었다

-도구(Instrument) : -로

예) 그들은 바리케이트로 앞길을 막았다

2-3 문제점

지금 간략하게 소개한 세종 용언전자사전의 의미역 기술체계 및 목록은 현재까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 중에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N-와' 논항의 처리문제이다. 'N-와'의 요소는 서술어와의 의미적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형태적인 특성에만 주목하여 동반주(Companion)이란 의미역을 모든 종류의 'N-와' 요소에 일괄적으로 주는 전례가 그간 많았다. 세종용언사전에서도 작년까지는 바로 그런 입장을 취했다. 우리는 'N-와'의 요소가 서술어와 맺는 의미적 관계에 따라 두 개의 의미역, 동반행위주(Co-agent) 또는 기준치(Criterion)의 의미역을 부과했다.

예1) 철수는 나와(Co-agent) 사랑한다

예2) 철수는 나와(Criterion) 다르다

그러나 실상 'N-와'의 요소가 서술어와 맺는 의미적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위의 예1)의 '나와' 논항의 의미역은 동반행위주(Co-agent)이자 동시에 중립대상(Neutral)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예1)의 '나'는 철수를 사랑하는 행위주이자 동시에 철수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3) 철수는 나와 그렇게 약속했다

또 같은 논리로 예3)의 '나와' 논항의 의미역은 동반행위주(Co-agent)로 주었지만 실상은 동반행위주(Co-agent)(또는 동반공여주(Co-donor))이자 동시에 도착점(Goal)이 되어 한다. 이렇듯 'N-와' 요소가 서술어와 맺는 의미적 관계는 아주 다양해서 서술어와 맺는 의미적 관계에 따라 의미역을 주게 되면 의미역 기술이 너무 복잡해진다. 그렇다고 이전의 방식대로 동반주(Companion)란 의미역을 모든 종류의 'N-와' 요소에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도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여겨진다. 두 번째 문제는 심층의 의미만이 아니라 표층의 의미까지도 포착하고자 하는 의미역 표상 원칙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이 표상원칙은 현 의미역 체계에서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래 예4)의 수동구문(또는 의사수동구문)과 능동구문은 심층의 의미는 같아도 표층의 의미에서까지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아래 예의 첫 구문에서 주어인 '내가'가 '때리다'란 서술어와 맺는 의미적 관계가 두 번째 구문의 '나에게'가 '맞았다'와 맺는 의미적 관계와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구문의 주어와 동작주보어에 공히 행위자(Agent)라는 의미역을 부여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동작주보어 '나에게'에 부여할만한 적절하고도 고유한 의미역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4) 내가 철수를 때렸다 ↔ 철수가 나에게 맞았다

이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2-4 의의

세종 용언전자사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용언에 대한 기술은 연차적으로 누적되어 중국에는 거의 모든 용언에 대한 기술을 총망라하게 된다. 의미역 기술 역시 용언 전 구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임으로 용언 전체 구문에 대한 의미역 표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세종전자사전의 모든 정보가 그러하듯이, 그 자체로 자료체인 가치를 지니며 구체적으로 한국어 용언의 의미부류 등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의미역 목록과 각 의미역의 정의는 향후 세종 용언전자사전에서 기술될 상당수의 용언 및 그 구문들에 적용되면서 필연적으로 검증되고 보완되면서, 또 앞서 언급한 문제점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경험적으로 증명된 한국어 의미역 이론 체계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1: 세종용언사전의 의미역 목록

1998-2000년도	2001년도
대상행위주 (Affected Agent)	대상행위주 (Affected Agent)
행위주	공여주(Donner) 수령주(Recipient) 공조행위주 (Joined Agent) 상태주(Positionner)
X	비의도행위주 (Effector)
X	소유주 (Possessor)

1998-2000년도	2001년도	
대상 (Theme)	영향대상 (Affected Theme)	피해주(Patient) 동작대상 (Motion THM) 공조동작대상 (Joined Motion THM) 대상(Affected Theme)
	비영향대상 (Non affected Theme)	창조대상(Creature) 중립대상(Neutral)
경험주 (Experiencer)		경험주 (Agent Experiencer) 경험자(Experiencer)
동반주 (Companion)		동반행위주(Co-agent) 동반대상(Co-theme) 기준치(CRT)
처소(LOC)		처소(LOC) 행로(Range) 장면(Scene)
출발점(SRC)		출발점(SRC) 최초상태(Initial State)
도착점(GOL)		도착점(GOL) 결과상태(Final State)
방향(DIR)		방향(DIR)
도구(INS)		도구(INS) 경로(Path) 재료(Material)
이유(RSN)		비의도행위주(Effector)
X		목적(Object)
기준치(CRT)		기준치(CRT)
자격(APP)		X
정도(DGR)		정도(DGR)
참고문헌		
Broadwell, G. A. 1988. <i>Multiple θ-role assignment in choctaw</i> in W. Wilkins (ed.); <i>Syntax and semantics</i> . Vol 1. New York: Academic Press.		
Carter, R. J. 1976. <i>Some Linking Regularities</i> . Unpublished paper, MIT, Cambridge.		
Fillmore, C. 1968. <i>The Case for Case</i> in E. Bach, R.		

- T.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 1-210.
- Jackendoff, R. 1987. *The Status of Thematic Relations in Linguistic Theories in Linguistic Inquiry*. Vol. 18, number 3. 369-411
- Oppentocht, L. 1999. Lexical Semantic Classification Of Dutch Verbs, Universiteit Leiden.
- Sanfillippo, A. 1999. *Word Disambiguation by Lexical Underspecification* in E. Viegas (ed.); Breadth and Depth of Semantic Lexicon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The EAGLES Lexicon Interest Group. 1988. EAGLES Preliminary Recommendations on Semantic Encoding Interim Report.
- 木村睦子. 1977. 「일본어에서의 표층격과 심층격의 대응관계」. 國立國語研究所の報告 113.
- 김종명. 2001. 「한국어 통사론에 있어서 의미역 개념의 유효성 -비대격 동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월례발표회.
- 김현권, 박철우. 1999. 「세종 전자사전에서의 의미역 설정」. 세종 연구세미나 발표회.
- 1998, 1999, 2000년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보고서.